

임시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7년 1월 9일(월) 11:00-12:30
- 개최장소 : 이랜드복지재단 회의실
- 총이사수 : 8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배극수 이사, 정순돌 이사, 손병덕 이사
이상 6명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6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7년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임시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 의안>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종료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종료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우리 법인에서 수탁 운영 중인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2016년 11월에 발생한 6개월 수습계약 종료된 직원 황○○으로부터 부당해고 및 특정 종교 강요, 업무시간외 큐티 등에 대한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해 춘천시 민원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병덕 이사 : 산하기관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정영일 국장 : 오전 9시인데 기관의 월요모임과 큐티시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 정영일 국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큐티 등 종교행사 시간은 인사적 불이익이 없는 시간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6개월 수습종료도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시와는 종교행사 부분에 대해 향후 큐티 시간을 없애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직원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근무전 조회시간도 오전 9시로 조정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 해당기관에 소명한 상태입니다.

▶ 배극수 이사 : 지역 내 주민들과 언론들의 반응 어떠합니까.

▶ 정영일 국장 : 지역 내 언론 및 SNS등에 9차례 이상 편향된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현재 직원들도 외부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등 향후 지역 내에서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현재 춘천남부노인복지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단의 주기부자인 이랜드그룹에 계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민원인 황○○씨가 정치권에까지 문제를 확산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그동

안 법인이 노력하고 조치한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법한 절차가 아닌 여론 등에 무차별적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법인의 수탁운영종료를 통해 더 이상의 문제 확산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사님들의 심의를 제안 드립니다.

▶ 이태웅 이사 : 수탁운영종료에 대한 춘천시와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 정영일 국장 : 현 상황에 대해 시에 잘 설명하여 시와 위.수탁 종료가 합의가 될 경우 이후 수탁법인이 결정될 때까지 최대한 협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예정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및 심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윤형주 이사 : 현 상황으로 볼 때 현재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이전과 같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탁운영종료에 찬성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종료 심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12시 30분


2017년 1월 9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응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배 극 수 (인) 

이 사 정 순 둘 (인) 

이 사 손 병 덕 (인) 